

도내 창업기업 펀드 500억원 조성

‘전북-효성-SJ 탄소성장 펀드’ 공모 선정 200억 확보 · 창조경제혁신펀드 300억 투자 시작

전북도내 창업기업들의 든든한 ‘돈줄’이 트였다. 지난해 조성된 창조경제혁신펀드가 운용사 교체와 함께 본격적인 투자가 이뤄지는 가운데 탄소성장펀드 조성이 모태펀드 출자사업 선정 등으로 탁월한 성과를 거뒀기 때문이다. 이로써 도내 창업기업들을 위한 총 500억원의 든든한 자금 조달 채널이 마련돼 창업기업들이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전망이다.

27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유망 스타트업 기업 육성을 위해 중소기업청과 한국벤처투자에서 주관한 ‘한국 모태펀드 2016년 2차 정시 출자’ 공모사업에 ‘전북-효성-SJ 탄소성장 펀드(이하 탄소성장펀드)’가 최종 선정됐다.

앞서 도와 효성은 전북특화산업(탄소, 농생명, 문화 등) 분야의 창업초기 기업에 집중투자를 유도하고, 도내 유망 중소·벤처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도·효성·SJ투자파트너스가 100억원의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었다. 그러던 중 ‘한국 모태펀드 2016년 정시 출자사업’ 공모에 적극 참여해 선정됨으로써 모태펀드 100억원을 추가로 확보하는 쾌거를 거뒀다.

앞으로 ‘탄소성장펀드’는 올해 7월부터 본격 운용돼 4년간의 투자 기간과 4년간의 회수기간의 만 8년간(해수 9년) 운용될 예정이다.

또한 지난해 출자된 성장사다리 펀드 100억원과 효성창조경제혁신펀드 200억원 등도 적극적으로 투자되고 있어 이번에 조성된 ‘탄소성장펀드’와 함께 전북지역 경제발전을 위한 창업 생태계 조성에 청신호가 켜졌다



통합방위협의회 27일 전북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열린 ‘2016년 제2차 전북도통합방위협의회’에 민·관·군·경이 참석한 가운데 출하진 도시사가 인사말을 하며 지역통합방위체제 확립을 강조하고 있다.

는 의견이다. 당초 효성창조경제혁신펀드는 지난해 7월 조성됐으나 센트럴투자파트너스의 소극적·보수적 투자성향으로 인해 집행실적이 전무했다. 이에 효성측은 올해 3월 SJ투자파트너스로 운용사 전격교체, 3개월여만에 5건, 30억원의 투자 실적을 냈다. 창조경제혁신펀드와 탄소성장펀드는 전북에 기반을 둔 지역 중소·벤처기업에 의무적으로 60%이상 투자를 해야하기 때문에 이번에 조성된 총 500억원 규모의 펀드는 지역 내

창업기업에 대한 발굴·투자를 한층 더 용이하게 만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로써 도내 기업들은 투자를 받기 위해 서울·수도권으로 갈 필요가 없게 되고, 접근성 또한 좋아져 시간·경제적으로도 큰 도움을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도는 펀드 조성에만 안주하지 않고, 우수 창업 초기기업을 발굴하고 엑셀러레이팅을 거쳐 글로벌 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투자역량 강화 프로젝트를 실천계획을 구상하는 등

발 빠른 후속대책을 논의하고 있다. 이형규 정무부지사는 “창업 초기 기업들이 전북·효성·에스케이 탄소성장펀드를 적극 활용해 투자 공백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정착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는 디딤돌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창업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누구나 성공하는 것은 아니며, 가장 ‘나’다운 것을 찾고, 내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방식을 찾아 나갈 때 창업의 성공 열쇠를 손에 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수 기자

전북도, 선도적 기업 22개사 선정

전북도가 세창스틸 등 22개 기업을 선도적 기업으로 선정했다. 27일 도는 지역 제조업 성장을 견인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선도적 기업 22개사를 선정했다. 선도적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게는 향후 5년간 기술 및 시장·인력 등 필요한 지원을 한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을 살펴보면 세창스틸은 지난 2013년 수도권에서 정읍으로 이전, 후처리 공정에 대한 투자를 완료했다. 이밖에도 안티에이징 제품을 생산하는 피코바이오와 만두 생산

전문기업인 지엠에프는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매출 상승 효과를 누리고 있다. 도 관계자는 “선도기업이 지역 경제성장과 수출 활성화에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며 “선도기업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을 높이고, 지역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도는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선도기업 112개사를 선정해 지원을 통해 기업 성장을 촉진시켰다. /정영수 기자

지방재정개혁 해법 찾는다

행정부, 국민대토론회 개최

행정자치부는 27일 충북 제천 한방생명과학관에서 중부권 자치단체 공무원, 시민단체, 전문가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재정개혁 국민대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발표한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강원, 충북, 충남, 대전, 세종시 등 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들의 요청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개회사에서 “지방재정개혁은 미래의 주민행복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국민들과 자치단체 의견을 바탕으로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고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발제자로 나선 충북발전연구원 김덕준 연구위원은 “도 차원의 세수확

충노력과 세출구조 조정 노력이 필요하며 재정평형성 강화는 정부의 정책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안형기 건국대 교수는 토론에서 “조정교부금 배분기준이 재정여건이 나은 자치단체에 더 많이 배분되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는 만큼 도농간 공동발전 차원에서 지방재정개혁은 시급하다”며 “정부의 제도개선 의지가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손은성 충북여성살림연대 정책실장은 “경기도의 잘못된 조정교부금 우선 배분 조례는 하루 빨리 개선이 필요하다”며 “지방재정확충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한편 행정부는 지난해 시·군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중 재정력지수 반영 비중을 20%에서 30%로 높이고 징수 실적 비중을 30%에서 20%로 낮추는 한편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에 대한 우선배분 특례조항을 폐지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정영수 기자

전공노 “성과연봉제 반대” 단식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정부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지침에 반대하며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전공노는 27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성과급제 폐지 퇴출세 저지 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객관적 기준도 없이 강행되는 성과급제를 폐지하고 임금으로 환원하며 성과평가에 따른 강제 퇴출세를 강제하는 국가공무원법의 개악을 저지하고자 무기한 단식농성 투쟁을 개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성과급제·퇴출제는 공직사회에서도 2000년대 중반 심각한 부작용으로 중지했던 정책”이라며 “국제적으로나 국내 대기업에서도 신(新) 경영전략으로 채택해 운영하다가 오히려 퇴출당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영수 기자

국가재난관리체계 2018년까지 재구축

‘신고·정보·통신’ 통합·연계 강화... GIS 기반 통합재난정보시스템 마련 계획

국민안전처가 신고발생부터 초기대응까지의 모든 재난현장 상황을 통합 지휘하는데 필요한 신고·정보·통신 체계간 연계 강화를 위해 국가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를 재구축한다고 27일 밝혔다. 기존 국가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는 신고·정보·통신체계 등 3대 정보통신 인프라 간 통합·연계체계가 미흡해 실시간 급변하는 재난현장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치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안전처는 2017년까지 ▲신고체계(긴급신고전화통합) ▲정보

체계(통합재난안전정보시스템) ▲통신체계(재난안전통신망)가 구축됨에 따라 3대 정보통신 인프라간 통합·연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2016~2018년 국가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 개선계획’을 수립·추진키로 했다. 안전처는 어떠한 악조건에서도 신고자, 상황실, 재난현장대원간 정보의 전달·공유가 가능하도록 재난안전통신망 기반의 정보공유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특수·해양분야를 보완한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반의 통합재난안전정보시스템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국가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를 2018년까지 갖추기 위해 안전신고·정보분석체계 구축, 해양경비안전 통합관리시스템 기능개선, 재난안전 전문통신망용 앱스토어 개발, 정보통신사업 사전협의 지침 제정 등 8대 분야 17개 과제에 429억원을 투자한다. 김동현 국민안전처 기획조정실장은 “2018년까지 3대 정보통신 인프라 기반의 국가재난관리정보통신체계가 완성되면 구조·구급 등 재난현장에서 상황대응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영수 기자

정부 합동 ‘전시 국방 동원’ 모의연습

내일 물자 동원 · 다음달 5일 병력 동원 집행 절차 연습

국방부는 ‘을지연습’을 앞두고 오는 29일과 다음달 5일 두 차례에 걸쳐 전시 국방 동원 자원의 집행 절차에 대한 모의연습을 정부 부처 합동으로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을지연습은 국가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비상 대비 업무를 수행하는 훈련이다. 29일은 물자 동원 집행 절차 연습, 그리고 7월5일은 병력 동원 집행 절차 연습이다. 29일에는 국가 비상사태 시 동원령

이 선포될 경우를 상정해 군사 작전에 지원되는 장비와 물자 등의 동원 집행 절차를 국민안전처 주도 하에 시행된다. 다음달 5일에는 병력 동원 자원의 군부대 동원 소집 절차와 긴급 동원 소요에 대한 집행 절차를 병무청 주도로 시행하게 된다. 국방부는 “이번 연습은 국방부가 최초로 관련 부처와 협업해 정부 종합상황실에서 전체 시스템을 가동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박용주 기자

여름방학스피치 특강모집
스피치 · 웅변 · 면접 · 웃음치료 · 시낭송

◎ CEO, 2%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귀하에게 날개를 단다
 ◎ 감성과 파워 스피치로 언력(言力)의 시대에 성공의 날개를 단다
 ◎ 소통과 감성의 시대 필수과목을 이수해야 날개를 단다

〈김양옥 전담교수와 전문강사지도〉

- 전주교육대학교 겸임교수 · CEO 과정 담임교수
- 전북대 교양학부 (토론과 면접) 전담강사
- 한국웅변인협회 전북회장
- 전북 최초 스피치 면접과목 강의를
- 한국스피치&리더십컨설팅 대표
- 스피치 리더십 경력 41년 강사 및 스피치 칼럼리스트
- 저서: '365일스피치커뮤니케이션', '나를 세운 말, 말, 말', '스피치노하우' 등

※부별: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일반부, 면접지도, 개인지도, 주말반

강의특징: ① 41년의 지도경험과 노하우로 알차고 재미있는 주2회교육
 ② 각종대회 출전지도(대통령상 2회, 국무총리상 2회 및 최우수연사 배출)
 ③ 김양옥의 전문강사가 특별강의 함
 ④ 차량운행(유치부,초등부)함 ⑤ 그룹강의는 매주 2회

상담전화 285-6676, 231-6669 010-7304-5665

(사)한국웅변인협회, (사)한국웅변단체총연합회
부설 . 한국스피치&리더쉽 컨설팅
한국스피치&면접 아카데미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ijmaeil.com